



자료문의 : 지식서비스과 주영준 과장, 최우혁 사무관(2110-5122)
창의혁신담당관 박재영 과장, 김민정 사무관(2110-5148)

공공기관 혁신에 아웃소싱 활용을 적극 주문

□ 지식경제부는 한전 등 예산 1조원 규모가 넘는 산하 12개 공공기관*에 대해 민간에서 대체가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아웃소싱(Outsourcing)**할 것을 주문했음

* 12개 공공기관이 지경부 소속 69개 공공기관 아웃소싱의 87%를 차지
-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수력원자력(주), 한국석유공사, 한국남부발전(주), 한국서부발전(주), 한국중부발전(주), 한국동서발전(주), 한국남동발전(주)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출보험공사, (주)강원랜드

** 아웃소싱 : 기업의 일부 기능을 외부에 위탁·수행하는 경영활동(시설관리, IT, 물류, 컨설팅,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분야에 주로 활용)

- 지경부는 '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'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 아웃소싱 확대방안을 추진해 왔으며,
- 금번 조치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 경제활성화라는 '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'과도 정책목표가 부합함

□ 지경부가 11월 산하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'08년도 아웃소싱 규모는 전체 예산의 8%에 불과하며 '09년도에는 오히려 6.3% 감소한 7,149억원에 그쳤음

- 특히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아웃소싱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A기관의 경우도 예산대비 아웃소싱 비중이 1.4%에 불과해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

- 내용면에서도 사업시설관리(42.2%), 컴퓨터관리서비스(21.2%) 등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교육, 시장조사 및 컨설팅, 디자인, 광고, 법률·회계 등 지식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
- 이번에 지경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아웃소싱을 요구한 것은 아웃소싱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,
 - 일정 공공서비스 부문을 민간기업이 대체할 경우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 것임
- 지경부 관계자는 실물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,
 - 12개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확대계획을 제출받아 이르면 12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